

2016 리우올림픽 안전여행

외교부 리우 임시영사사무소 운영(8.4.-22.)

201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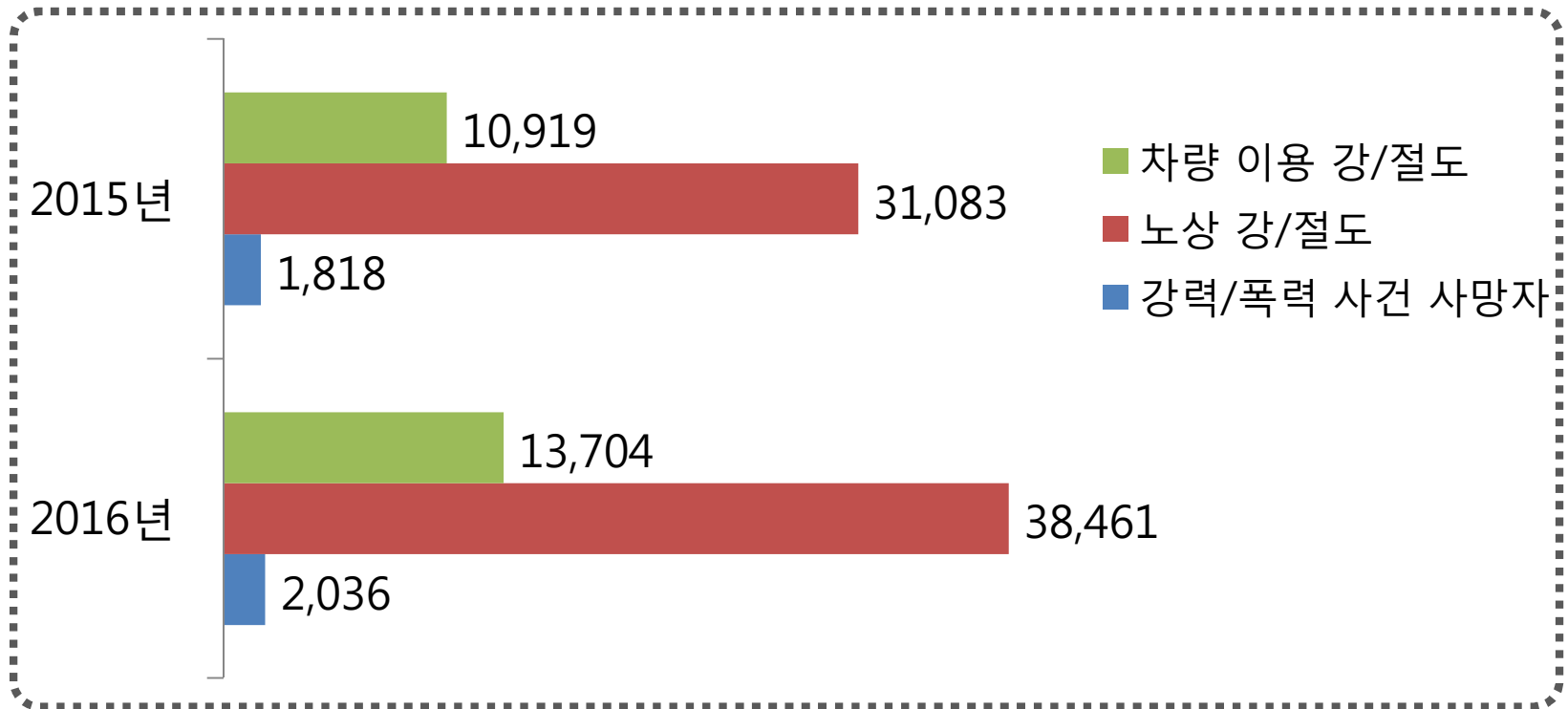
1

리우데자네이루 일반정보

- **위치** 브라질 남동부 해안에 위치
- **인구** 약 650만(주 총인구: 약 1,655만 명)
- **면적** 4만km²
- **기후** 열대해양(8월 최고 24°C / 최저 18°C)
- **시차** -12시간(한국시간-12시간 = 브라질시간)
- **언어** 포르투갈어
- **화폐단위** 헤알(Real)
- **역사** 17세기 브라질내 목축, 사탕수수, 금광 산업의 호황으로 이들 생산품의 수출항구로 발달, 최장기간 브라질의 수도 (1763-1960)였던 브라질 근현대문화의 중심지

2-1 리우데자네이루 치안 현황

● 브라질 공공치안연구소 발표 통계자료(1-4월 기준)



위험한 리우... 총기 강도 당한 금메달리스트

임경업 기자

입력 : 2016.05.26 09:00

스페인 요트 선수 에차바리



2008 베이징 올림픽 요트에서 금메달을 딴 페르난도 에차바리가 아들을 안고 요트에 오르고 있다. / AP 연합뉴스

"살아남은 게 다행이다."

8월 개막할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앞두고 현지에서 훈련 중이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총기 강도를 당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건이 일어났다. AP통신에 따르면 2008 베이징올림픽 요트 금메달리스트(토네이도급) 페르난도 에차바리(44-스페인)는 24일 동료 선수 2명과 함께 브라질 리우의 유명 관광지 산타 테레사로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

약 20분간 언덕길을 걷던 에차바리 일행 앞에 갑자기 2자루의 권총을 가진 소년 5명이 나타났다. 강도 일행은 총구를 에차바리의 가슴팍에 갖다 댔다. 에차바리는 "그들은 16세도 채 안 돼 보이는 소년이었다. 심지어 마약을 한 것처럼 뿔뿔 떨

었다"고 했다. 에차바리와 일행은 그들에게 돈과 휴대폰, 전자기기, 카메라가 든 가방 등 가진 모든 것을 넘기고 풀려났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에차바리는 "이런 일을 피하려면 리우에서는 무조건 택시나 차를 타야 한다"며 "내가 너무 방심했다. 리우는 완전히 통제 불능인 곳"이라고 했다. 앤디 헌트 국제요트연맹 CEO는 "리우시는 선수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브라질 축구스타 히바우두, '브라질 불안... 리우올림픽 오지말라'

[중앙일보] 입력 2016.05.10 15:40



[사진 히바우두 인스타그램]

브라질 정보당국 "리우올림픽 IS 테러 노출 가능성"

기사입력 2016/04/15 22:45 송고

'외로운 늑대들' 테러 공격 가능성 우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을 전후해 테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정보국(Abin)은 IS의 한 조직원이 지난해 11월 17일 트위터에 브라질을 테러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트위터에 글이 올라온 때는 파리 연쇄 테러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글을 올린 IS 조직원은 프랑스 노르망디 출신으로 국제 수배를 받는 막심 오샤르라고 정보국은 전했다.



브라질 정보 당국이 브라질을 테러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지목한 프랑스 노르망디 출신으로 국제 수배를 받는 막심 오샤르. [출처: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노상 강/절도 사례



차량 이용 강도 사례



10대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



연합뉴스TV

23

17:35

금리인상 적절할수도" 검찰, '쌀 불법 기부 혐의 김진표 당선인 2시 대전 27.6℃

한국 건설사 직원 피살 사건



2-2 도보이동시 유의사항

- 값비싼 장신구, 전자기기, 지갑 등을 착용하거나 노출하지 마세요.
- 특히,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날치기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도로변에 누워있는 노숙자나 마약중독자를 주의하세요.
- 여권,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돈을 넣어둔 지갑과는 분리하여 소지하세요.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일부는 숙소에!
- 총기 강도를 만났을 땐, 절대 저항하지 말고, 범인이 직접 지갑이나 물건을 가져가도록 유도하세요.
- 시위나 소요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3 도로에서 유의사항

-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정차 중일 때 차문 및 창문을 잠가 주세요.
- 차량으로 이동시 손가방이나 노트북, 카메라 등 귀중품은 반드시 트렁크에 넣거나 의자 밑에 숨겨주세요.
- 차량 이동 도중 정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근 경찰서 및 주유소를 먼저 찾고, 갓길 정차를 피하세요.
-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호텔에서 불러주는 정식 택시를 이용하시고, 택시 안에서도 이동중에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지 마세요.

2-4 기타 유의사항

- 야간활동을 자제하시고, 빈민촌은 절대 출입하지 마세요.
- 코파카바나, 이파네마 해변의 물살이 세므로, 절대 수영하지 마세요.
-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는 공항이나 공식 환전소(Cambio)를 이용하세요.
-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둥글게 하는 OK표시는 브라질에서 대단히 무례하고 외설스러운 행동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 꼭!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브라질로 출발하세요.

리우 파벨라(빈민촌) 분포도



3

리우 임시영사사무소 운영

- **기능** 우리국민 사건, 사고 신속대응
- **운영 기간** 8.4~8.22, 08:00-20:00
- **장소** 리우데자네이루 KOTRA 사무소
- **구성** 외교부, 경찰청, 국립의료원
- **전화번호** (주간) +55-21-2172-0928
(주·야간) +55-21-99027-7035



리우 임시영사사무소 위치



기억하세요!



◦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 이용방법

- 국내: 02)3210-0404(유료)
- 해외: +822-3210-0404(유료)

> 상담내용

- 우리국민 해외 사건·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



여행의 첫 번째, 안전먼저 확인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 > 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자등록제, 동행, 위기상황별 대처메뉴얼, 좌충우돌 상황별 카툰, 대사관, 총영사관 연락처 현지 긴급구조 번호안내



확인하세요!



- 맞춤형 안전정보 문자서비스



- 카카오톡에서 '리우올림픽 안전여행'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

